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Tuesday 20 November 2001 (afternoon)

Mardi 20 novembre 2001 (après-midi)

Martes 20 de noviembr de 2001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are encouraged to use them as starting points for your commentar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 Rédiger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Il est toutefois recommandé de les utiliser comme point de départ du commentaire.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se recomienda que las use como punto de partida para el comentari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a)**

단추를 채우며

단추를 채워 보니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5 단추를 채워 보니 알겠다**

잘못 채운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실패

누구에겐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10 잘못을 깨운다**

그래,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의 구멍 찾기 같은 것이야.

단추를 채워 보니 알겠다

단추도 잘못 채워지기 쉽다는 걸

**15 옷 한 벌 입기도 힘든다는 걸.**

(천양희, ‘단추를 채우며’, 제 10 회 소월시문학상 수상작품집에서, 1999)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는가?

시에서 ‘단추’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시의 시적 운율은 시를 이해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1(b)

깊은 숨을 쉴 때마다

이 년 후쯤, 아니 일년 후, 아니 육 개월이라면 더 좋겠다. 그때쯤 나는  
처녀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고 싶다.

--당신이 떠나고 얼마 안 있어 나도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애의 죽음을 내가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이 때로 슬프지만  
5 어쨌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고도 살아진다는 사실이 신비롭기도 하고  
사무치기도 해요. 더듬더듬 혼자서 다시 첼로를 켜는 일에 익숙해졌고, 쉽지는  
않지만 친구도 사귀어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처녀가 쓴 편지를 내 우체통에서 꺼내 읽어보고 싶은 건 나의 소망일 뿐,  
지금은 이 년 후도 일년 후도 육 개월 후도 아닌 내가 그곳을 떠난 지 이제 겨우  
10 사흘, 스무 몇날을 머물렀을 뿐인데 나는 아직 아침마다 여기가 성산포인 줄로  
짧은 시간 착각한다. 당근밭과 목초지와 노쇠한 말 그리고 바다를 찾다가 여기는  
성산포가 아니라 산밑 내 집이라느 걸 깨닫는다. 돌아와서 죽은 벽시계에 새  
건전지를 갈아끼웠고, 웅웅 소리가 나느 온수통을 사람을 불러 고쳤다. 이제  
여기에 있으니 성산포에서 배회하던 내가 빛이 들어간 필름처럼 떠오른다. 그래도  
15 내 머리카락에선 아직 갓내가 맡아지고 내 컷속에도 아직 바다새가 끼룩거리는  
소리가 살고 있고, 떠나올 때 방과제를 향해 달려가던 자전거 위의 소녀가 내  
눈속으로 흐르고 있다. 밭의 무성해진 당근썩 밑으로 붉은 당근이 덩치를 키워가고  
있겠지. 이렇게 지금은 그곳을 떠난 지 사흘 후일 뿐. 설령 처녀가 내가 떠난 후  
바로 편지를 썼다고 해도 소식은 아직 내게 도착하지 못하고 어디엔가 머물러 있는  
20 사흘 후일 뿐.

(신경숙, '깊은 숨을 쉴 때마다', 1995 년도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

이 소설의 시점은 무엇인가?

이 소설에서 성산포의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 소설의 형식적 특징은 무엇인가?